

내 성적 왜 이런가 ... 성적평가공개 요구 이어져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서울】총학생회(총학) 산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가 성적평가공개제도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학자추는 지난 11월 6일 교무처와의 면담을 통해 성적 공개 시 최종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평가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 우리학교 성적공개 시스템은 과목별로 최종 점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학기가 끝나면 공시된 성적에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성적확인과 정정절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도 지난해 그런 경험을 했다. A씨는 “교수님이 정정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점수를 입력하셨는데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이뤄진 것인지라도 알고 싶어 담당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정정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됐는지는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자추 이우기(정치외교학 2016) 교육환경개선위원회장은 “현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점수를



를 받은 경우 교수에게 별도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학생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때문에 성적평가공개제도는 학자추 출범 당시부터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학자추가 이번 개정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성적평가공개가 현 총학의 공약이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커넥트

선본은 ‘성적 마감 시 중간·기말·과제 점수 의무 공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삼파전으로 치러진 제51대 서울캠퍼스 총학 선거에서는 당선된 경희대로 선본뿐만 아니라 더함, 메이커까지 세 선본 모두 세부적인 성적 평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자추는 교무처 측에 성적평가공개 도입을 요청하면서 성균관대와 성신여대에서 운영 중인 성적공개 방식을 사례로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서울 내 10개 대학의 성

적공개 방식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학교의 사례가 참고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학기 중간과 학기 종료 이후, 두 번에 걸쳐 강의평가를 진행한다. 학기 중 강의평가 후에는 자신의 중간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성신여대는 성적을 조회할 때 최종 점수와 함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에서 자신이 각각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적평가공개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광복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그 동안 학생들이 성적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것은 정량화된 성적을 보고 사람을 뽑는 기업의 요구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 교수는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도 선발 방식을 바꿔가고 있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서도 성적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보다는 과도하게 학생들을 쫓 세우고 비인간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방식 자체를 개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교무처는 지난 11월 14일 성적평가공개제도 도입에 대한 학자추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학사지원과 권은정 과장은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현재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세부평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당장에 바꿀 수가 없다”면서 “시험단계인 Info2에 해당 기능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권 과장은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강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회의를 거쳐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2학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련상 10년, 교육·연구·실천 최고 명예의 상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우리학교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동안 일궈낸 성취에 대해 돌아보는 ‘매그놀리아’(목련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뤄낸 주인공에게 목련상을 수여한다. 그리고 올해, 목련상이 10번째 해를 맞았다.

목련상은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창의적이며 탁월한 성취를 이룬 구성원(혹은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수상한다. 이는 대학의 3대 역할과 기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목련상의 이름은 학교의 상징인 목련에서 따왔다. 목련은 추운 겨울을 버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소통팀 정민재 직원은



“목련상은 우리학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며 “지난 2009년에 우리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한 해의 업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상이 아닌 개인이나 팀이 일생, 혹은 학교에서 쌓아온 모든 업적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여하는 다른 상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의미가 깊다”며 덧붙였다. 이에 더해 “상의 이념에 맞거나 진정으로 학교에 기여하신 한 분께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해도 있다”며 목련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목련상은 대외적으로 우리학교의 탁월한 성취를 알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준다. 정

직원은 “김종규 지리학과 교수, 이이성호 경영대학 교수를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인상 깊은 수상자로 뽑았다. ‘목련상은 고인이 된 분들께 드리는 경우도 있다’며 “유족 분들이 오셔서 상을 받을 때, 감동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정 직원은 “목련상은 일생을 평가하는 상이기에 연륜 있는 분들이 많이 받는다”며 “일생동안 해온 일에 대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우리학교의 최고 권위를 지닌 목련상은 조형물을 제외하곤 상장이나 상금과 같은 어떠한 부상도 없다. 목련상 수상자들에게는 교화인 목련 봉우리를 오른손에 쥐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

만 수여된다. 조형물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미래 인류의 문화 세계를 상징한다. 정 직원은 “목련상은 오로지 명예만 드리는 상”이라며 “다른 부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목련상을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련상 수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절차를 거친다. 처음 이뤄지는 목련상 후보자 검증작업에서는 후보자의 평판과 자료를 수집한다. 검증작업이 끝나면 최종검증자료를 심사 위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오는 21일에 있을 목련회에서 목련상을 수여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10번째 해를 맞은 목련상에 걸맞게 목련과 닮은 수상자를 기대한다.

매일 오전 10시

전시 해설!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KYUNG HEE UNIVERSITY NATURAL HISTORY MUSEUM

기간 | 2018년 11월 1일~2019년 2월 10일
시간 | 매일 오전 10시(약 30분~1시간 소요예정) 장소 |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구 한의대)
문의 |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02)961-0142

대학생 여러분
2019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11월 20일 부터 ~
12월 17일 까지

•신청기간
11월 20일(화) 9시 ~ 12월 17일(월)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1월 20일(화) 9시 ~ 12월 20일(목) 18시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신청문의
☎ 1599-200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